

인제대 프라임사업단, 진로직업 체험의 날 개최

대학경제 | 문수빈 기자

2018.11.05 19:49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8110519417438854&type=1>

기사주소 복사



인제대학교 프라임사업단은 지난 3일 일강원 광장에서 진로직업체험의 날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제대 특성화분야를 대표하는 12개 학과(부)가 체험부스에서 500여 명의 지역 중·고 등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전공 체험과 진로 및 입학상담을 진행했다.

주요 체험 내용으로는 △나노융합공학부 '아두이노를 이용한 LED 만들기' △디자인엔지니어링학과 '3D프린터를 이용한 생활소품 만들기' △실내건축학과 '3D공간 VR체험 및 내 방 만들기' △바이오테크놀로지학부 'DNA 열쇠고리 만들기' △보건안전공학과 '산업현장/안전관리 체험' △전자IT기계자동차공학부 '무공해동력원자동차 제작 시연' △제약공학과 '향수 제조체험' △헬스케어IT학과 '뇌파와 생체신호 측정 체험' 등이 진행됐다.



행사장을 찾은 김해중학교 2학교 최민규 학생은 "평소 관심있는 분야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 좋았다"며 "진로를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김태구 인제대 프라임사업단장은 "지역 내 중·고등학생이 전공 분야를 직접 체험하고,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제대는 오는 12일부터 3일간 인제대 프라임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프라임페어(PRIME FAIR)를 개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